

## 튀르크 설화 속에 나타난 사슴 모티브 연구\*

A Study of the Deer Motif in Turkic Folklores

김 효 정  
부산외대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사슴소재 튀르크 설화 소개
- III. 자료 분석에 따른 사슴의 의미와 상징
- IV. 맺음말

주제어 : 튀르크 설화, 사슴의 상징과 의미,  
샤머니즘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05년 5월 14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2005년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I. 머리말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표현해 온 문양들 가운데는 상징적 무늬나 기호뿐 아니라 말, 사슴, 용, 독수리, 사자, 늑대와 같은 동물들과 매, 독수리 등과 같은 맹금류, 자작나무, 떡갈나무, 벚나무와 같은 식물 등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신화나 설화에서 서로 흡사한 상징적 무늬와 신화적 모티프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20년 동안 고대인들의 상징적 기호를 연구한 우크라인 출신 학자 아리엘 골란은 이런 상호 유사성은 다중심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연원을 가진 것이며 그 연원은 구석기 시대에 소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sup>. 이러한 다양한 상징들이 언제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계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상징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그 상징들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분명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사시대 사람들의 사고와 세계관 뿐 아니라 문화에 나타난 제반 형상을 조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사슴은 전 세계 구비문학과 표현예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상징들 가운데 하나로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 사슴을 소재로 한 문양은 인도의 구석기시대 동굴벽화나 기원전 7000년 경 소아시아의 초기 신석기 시대 주거유적지인 차탈 회웁(Catal Hoyuk)에서도 발견된다. 동물 문양으로 유명한 스키타이인들의 철과 금으로 만들어진 도끼에도, 유라시아의 초기 철기시대로 대표되는 기원전 5-4 세기의 파지리크 문화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슴 표현 예술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sup>2)</sup>.

튀르크족의 설화나 표현 예술에서 묘사되는 신화적 동물 가운데는 맹금류나 맹수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유라시아로 유목민족인 것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최초로 등장한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족의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다. 튀르크족의 신화적 동물로는 독수리, 매 등과 같은 맹금류와 이리, 사자, 호랑이, 곰 등과 같은 맹수 및 말, 사슴, 황소, 낙타, 닭 등이 있다. 튀르크족의 이리신화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튀르크족의 기원신화이지만 한 중국 문헌에는 사슴이 튀르크족의 조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슴은 튀르크족의 설화에서 가장 많이

1) 아리엘 골란, 정석배 옮김,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푸른역사, 2004, p. 7.

2) 아리엘 골란(2004: 156)은 사슴이 신화적 동물로 표현되기 시작된 것은 이미 구석기 시대에 이루어졌으며 신화 자체는 중석기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본다.

등장하는 신화적 동물 가운데 하나로 튀르크족이 불교나 이슬람교를 수용한 이후에도 그 신성성은 지속적으로 묘사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렇듯 유라시아에서 고대 선사시대부터 신화적 동물로 표현되어 온 사슴이 여러 튀르크족의 설화 속에서는 어떠한 의미와 상징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유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튀르크족의 사슴 소재 설화들을 소개하고 연구한 여러 논문 및 저술들이 있으나 그 의미와 상징에 따라 사슴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고대 튀르크족의 신앙과 샤머니즘 용어 사전」에서 코르크마즈(Korkmaz)가 유일하다. 그는 튀르크 설화에 나타난 사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sup>3)</sup> : ①조상 혹은 튀르크족을 보호하는 신으로서 사슴은 동물신이자 토템이다. ②사슴은 물의 근원이자 동물모신이다. ③샤먼이 제일 많이 둔갑하는 샤먼의 보조영신이자 튀르크 설화에서는 땅의 신 혹은 지하의 신으로 묘사된다. 종종 인간의 형상으로 둔갑하며 착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벌주는 동물신이다. ④성인들이 가장 많이 둔갑하는 동물이며 성인들의 탈것(乘用)으로 사용되는 신령한 동물이다. 그러나 코르크마즈의 분류에는 큰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학계에서 인정되고 합의되지 못한 개념 혹은 서로 다른 개념이 한 분류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신과 토템의 개념, 물의 근원과 동물모신의 개념, 샤먼의 보조영신과 땅의 신 등. 또한 필자가 사슴 소재 튀르크 설화를 수집·분석한 결과 이 분류보다 더 세분화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II 장에서 튀르크 설화연구가 미진한 국내 학계에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터키와 유라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튀르크족의 대표적인 사슴 소재 설화들을 소개하고, III 장에서는 각 설화 속에서 사슴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에 따라 코르크마즈가 범한 오류들을 지적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사슴의 유형을 제시하고 IV 장에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사슴소재 튀르크 설화 소개

사슴을 소재로 한 여러 튀르크족의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 연구한 최초의 학자는 터키의 튀르크학자 차아타이(S. Çağatay)이다. 그녀는 그의

3) Korkmaz, Esat. *Eski Türk İnançları ve Şamanizm Terimleri Sözlüğü*, İstanbul, 2003, p. 70.

논문에서 튀르크족이 불교나 이슬람 종교를 수용한 이후에도 사슴이 여전히 신성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음을 밝혔다. 현존하고 있는 우이구르어나 차가타이어 및 오스만어 등으로 기록된 튀르크족의 역사 문헌에 나타난 사슴의 예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유라시아의 여러 튀르크족 설화 속에서 발견되는 사슴 소재 설화가 바로 이 역사 문헌 속에서 발견되는 설화들의 변이형임을 주장하였다<sup>4)</sup>. 한편 『튀르크 신화』를 저술한 외겔(B. Ögel)은 유라시아 튀르크족의 설화들 속에 나타난 세계수, 해, 달, 별, 물, 동물, 식물 등 여러 상징들을 주제별로 다루고 이러한 상징들이 묘사되는 다양한 예문들을 언급하였다. 본 저서는 튀르크족의 신화적 상징들을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귀한 고전적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인용문의 양이 너무 적어 설화의 전체 내용이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된 사슴 소재 튀르크 설화는 튀르크족의 조상을 언급한 중국문헌과 터키에서 발간(번역)된 튀르크 설화집 및 사슴 관련 논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한 것이다<sup>5)</sup>.

### 자료 1. 돌궐족의 기원신화<sup>6)</sup>

돌궐족의 조상은 사마사리(射摩舍利)와 바다 여신(海神)이다. 바다 여신은 아사득밀(阿史得密)의 서쪽에 산다. 사마는 신이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바다 여신은 저녁마다 해가 지면 흰 사슴<sup>7)</sup>으로 변하여 사마를 만나 함께 바다 속으로 들어가 아침이면 사마를 배운다. (하략)

4) Çağatay, Saadet, "Geyiğe Dair Bazı Motifler," *Türk Dili Araştırmaları Belleten*, Ankara : TDK, 1956. pp. 157-177.

5) 유라시아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는 튀르크족 이외에 카라칼팍족, 야쿠트족, 투바족, 하카스족, 알타이족, 노가이족, 타타르족 등 국가를 이루지 못한 튀르크족들이 있다. 필자가 2004년 여름, 우즈베키스탄의 과학아카데미를 방문했을 때 지방마다 돌아다니며 수집한 구비문학 자료들이 큰방 가득히 문서화되지 못한 채 에어컨이 설치된 방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언어로 비치되어 있는 구비문학 자료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에 거주하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 소수민족으로서의 튀르크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설화를 수집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가 될 것이다.

6) *태평광기* 480.

7) 몽골족의 선조도 흰 사슴이다. 징기스칸의 계보에서 '그의 선조는 잿빛 푸른 이리와 흰 암사슴이며 그들은 바다를 건너 왔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료 2. '알튼 푸르칸(Altın Purkan)' 사가이(Sagay) 튀르크족의 설화<sup>8)</sup>

<상략> ... 말이 둔갑하여  
 황금빛 뿔을 가진 암사슴으로 변했다.  
 "이 땅을 내가 없애지 않는다면  
 나를 아이카라스(Aykarasi)<sup>9)</sup>의 새끼라고 부르지 마라  
 이 세상은 내게 저주의 땅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암사슴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늘의 차안神<sup>10)</sup>과 땅의 아이나神도 울고 말았다.  
 암사슴이 분을 발하며  
 황금빛 뿔로 땅을 헤치더니  
 하늘 위로 뛰어 올랐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태양이 빛나지 않았고  
 흑암으로 변하여 밤과 낮이 같아졌다.  
 달은 흙보다 검게 되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달이 비치지 않았다..<하략>

자료 3. 텔레윛(Teleüt) 튀르크족의 설화<sup>11)</sup>

옛날에 어느 마을에 고아인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라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그의 손에 잡힌 동물을 놓친 적이 없었다. 많은 동물을 사냥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사냥꾼에게 물었다. “너는 동물들을 신의 명령으로 죽이니 아니면 네가 원해서 죽이니?” 사냥꾼이 말하기를 “신이 누군데요, 내가 있는데? 무엇이든 죽이고 싶은 것은 죽이지요. 사냥하고 싶은 맘이 생기면 사냥하구요” 그 후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하러 갔다. 길에서 세 마리의 사슴을 만나 그것을 쫓기 시작했다. 사슴들은 도망가

8) Radloff, Wilhelm. *Türklerin Kökleri, Dilleri ve Halk Edebiyatı II*, Ankara : Ekav Yayınları, 2000, p. 124.

9) 아이카라스(Aykarasi)는 말 이름이며 카라한(Han)은 말의 주인이다. 일반적으로 유목민족 영웅들의 이름은 말의 이름과 함께 불린다.

10) 생명을 주관하는 神의 이름이다.

11) Ergun, Metin. *Türk Dünyası Efsanelerinde Değişime Motifi II*, Ankara, 1997, p. 869.

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사냥꾼도 사슴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 사냥꾼과 함께 그의 말과 사냥개도 하늘로 올라갔다. 모두 다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들 모두는 오늘날에도 하늘에 있는데 사냥꾼의 피 묻은 화살도 함께 보인다.

#### 자료 4. ‘제스테이 뿔피’ 바라바(Baraba) 튀르크족의 설화<sup>12)</sup>

옛날 한 곳에 혈연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청년이 혼자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갈색 갈기를 가진 얼룩말의 주인 제스테이 뿔피’이다. 어느 날 그가 초원에 나갔을 때 절뚝발이 새끼를 가진 한 엄마사슴을 만났다. 제스테이 뿔피가 사슴에게 어디를 가냐고 묻자, 사슴이 말하기를, “갈색 갈기를 가진 얼룩말의 주인인 제스테이 뿔피, 너에게 가는 거야”라고 말하며, “너에게는 아픈 자의 영혼을 치료하는 젖이 나오는 암소가 있다고 들었다. 그 암소의 젖을 내 새끼에게 먹인다면 절뚝발이가 나올 거야”라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스테이 뿔피는 집에 돌아 와 암소의 젖을 짜서 그 젖을 새끼 사슴에게 먹이니 정말 사슴의 다리가 나왔다. 엄마사슴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7년 후에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7년이 지난 후 제스테이 뿔피는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 가기 시작하였다. 사슴의 발자국은 마치 오늘 지나간 발자국처럼 선명하였다. 제스테이 뿔피가 사슴의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따라 가다 보니 어느 돌집에 이르렀다. 그 집에 들어가니 그곳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가 집에 들어가 보니 자신의 혁대, 털모자, 옷 등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제스테이 뿔피가 그 처녀에게 이것들이 자신의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자 처녀는 자신이 7년 전 엄마사슴과 함께 제스테이 뿔피를 찾아가 그가 짜 준 암소의 젖을 먹고 다리가 나온 절뚝발이 사슴이라고 말하며, 그 때 자기가 제스테이 뿔피의 옷가지 등을 가져 왔고 그 당시 엄마사슴이 자신의 신앙감으로 제스테이 뿔피를 맘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제스테이 뿔피는 그 처녀와 결혼하였다. 이 후 제스테이 뿔피는 사냥을 나가 흰 거위와 검은 담비 등을 잡아 왔다. 어느 날 제스테이 뿔피는 자기의 부인에게 용사가 사는 곳을 아느냐고 물으니 부인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제스테이 뿔피는 ‘알고 있지 않소.’라고 말하며 사냥하러 나갔다. 그는 사냥할

12) Radloff, Wilhelm. *Türklerin Kökleri, Dilleri ve Halk Edebiyatı IV*, Ankara, 2000, pp. 89-94.

때 몸이 산만큼이나 큰 ‘검은 말의 주인 데미르 젤베겐’이라는 거인을 만나 결투를 하였다. 제스테이 뿔피는 젤베겐과 싸워 이긴 후 젤베겐의 머리를 베어 불에 태우고 그 재는 하늘로 날린 후 젤베겐의 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에게 “용사가 사는 곳을 알고 있지 않소?”라며 묻는다. 부인은 마지못하며 “그렇게 보채니 말해 드리지요, 세상 끝에 ‘제르 카라’라는 용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지요, 우선 두 마리의 말 모두 방목시켜 살이 좀 썬 후에요.” 제스테이 뿔피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말들을 방목시킨 후 며칠 후에 말들을 데려오니 부인이 말들을 보고, “얼룩말은 사흘, 검은 말은 하루 동안 타실 수 있습니다.”라고 일렀다. 제스테이 뿔피는 세상 끝에 있는 용사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하략>

**자료 5. 아나돌루반도 누르학(Nurhak) 튀르크멘족의 민요<sup>13)</sup>**

내게 인사한 험제(Hemze) 외숙에게  
와서 안장을 채우고 내 나귀에 타라 하시오.  
다시는 가지 마시오, 사슴 사냥하러  
이 때문에 나는 해(害)를 보았댜오, 친구들이여!

잠이 쏟아지며 눈이 감긴다.  
사슴이 와서 내 앞에 섰다.  
방아쇠를 당기려 하니 내 손이 풀렸다.  
사슴에게 가지 마시오, 조심하시오 친구들이여!

**자료 6. 아나돌루반도 누르학(Nurhak) 튀르크멘족 설화<sup>14)</sup>**

누르학 지방의 ‘유수프’라는 한 사냥꾼이 사슴사냥을 떠났다. 사냥에서 동굴 끝에 있는 한 사슴 떼와 마주쳤는데 사슴 떼 옆에는 흰 수염의 노인이 있었다. 노인이 사냥꾼에게 말하기를, “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게, 내가 네게 사슴새끼 한 마리를 주지” 그러나 유수프는 말을 듣지 않고 사슴 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노인이 이것을 보자 곧 큰 숫사슴으로 변하여

13) Yalçın, Ali Rıza. *Cenupta Türkmen Oymakları II*. Ankara, 1993, p. 417.

14) Ibid. p. 418.

유수프에게 ‘불쌍한 것!’이라 말하였다. 유수프는 바위를 건너 뛰어 가려 했는데 한 장막의 말뚝에 박혀 그만 죽어 버렸다.

### 자료 7. 쇼르(Şor) 튀르크족의 설화<sup>15)</sup>

<상략>... 한알프(Han-Alp)는 한메르겐(Han-Mergen)을 찾아 길을 떠났는데 아주 좁은 길을 보았다. 그곳에서 한메르겐이 암사슴 한 마리를 쫓고 있었다. 이 산은 일곱 神이 만들어 놓은 銅山(구리로 된 산)이었다. 산이 나뉘었다. 사슴이 빨리 가기 때문에 한메르겐은 사슴을 때릴 수가 없었다. 사슴을 때리려다 산을 쳤다. 산을 치니 산이 나뉘어졌다.....<중략> .사슴은 한 장막 앞에 도달하자 땅에 눕고 그 청년은 사슴을 쳐 죽였다. 장막 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청년에게, “내 이름은 바크르알프(Bakir Alp 구리 영웅)이다.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다. 네가 필요해서 너를 내게 데려 오라고 사슴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땅에 온 것이다”라고 말하자 한메르겐은 “왜 내가 당신에게 필요하오?” <하략>

### 자료 8. 아나돌루의 잿빛사슴인(Bozgeyikli) 설화<sup>16)</sup>

사람들은 엘베일리의 출신인 델리 아흐멧을 ‘잿빛사슴인(보즈게익리 Bozgeyikli)’이라고 부른다. 어느 날 잿빛사슴인은 우룸(Urum)으로 하지 벡타쉬(Haci Bektaş)에게 가서 기적을 보여주고 성자가 되었다. 그곳에 있던 어느 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남쪽으로 던졌는데 그것이 지금 그의 무덤이 있는 곳에 떨어졌다. 목동들이 그 지팡이를 집으려고 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마발리(Mavali)족이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낙타에 묶었으나 모든 낙타의 허리가 부러졌다. 마침내 잿빛사슴인이 와서 그것을 집었다. 이렇게 하여 그 종족의 성자가 되었다.

### 자료 9. 터키 부르사 지방의 ‘잿빛사슴아비(Bozgeyikli Baba)’ 설화<sup>17)</sup>

15) Radloff, Wilhelm. *Türklerin Kökleri Diller ve Halk Edebiyatı I*, pp. 344-360.

16) Yalçın, Ali Rıza. *Cenupta Türkmen Oymakları I*, pp. 33-34.

17) Çift, Salih. “Osmanlı Döneminde Bursa'da Bektaşî Kültürü ve Bektaşî Tek-

... 그의 본명은 ‘메흐멧 울뤼 바바’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주 온 사람이다. 오스만조의 오르한 가지(Orhan Gazi)<sup>18)</sup>가 부르사를 점령할 때 그는 사슴을 타고 다니며 전쟁에 임하였다고 한다. 오르한 가지는 그를 위해 사원을 만들어 주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곳에 성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 자료 10. 아나돌루의 ‘사슴사냥’ 설화<sup>19)</sup>

단티팔라(Dantipala)왕이 신하들과 사냥에서 많은 사슴들을 포획하였는데 또 다른 산에서 500여 마리의 사슴을 만났다. 그 사슴 떼 가운데 매우 아름다운 금빛사슴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사슴의 왕이다. 그러나 이는 사슴으로 현현한 부처였다. 사냥꾼들이 사슴 떼를 잡으려고 여섯 겹으로 에워쌌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슴들이 이 금빛 사슴 주위에 모여 생명 구해줄 것을 요청하자, 선의 상징이며 현자인 사슴 왕 곧 부처는 이 사슴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할 것을 각오한다. 사슴은 단티팔라 왕에게 다가 사슴들을 살려 줄 것을 부탁하며 선한 일을 할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이 큰 죄임을 말한다. 이에 왕은 못들은 체하며 분노를 발하며 칼을 뽑아 그 사슴의 목을 자르고 사슴의 목을 땅에 던지려는 순간 왕의 오른 손도 잘리며 칼과 함께 땅에 떨어졌다. 왕은 후회하였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다 ... <하락>

#### 자료 11. 키르기즈(Kirghiz) 튀르크족의 설화<sup>20)</sup>

<상략>...어떤 한 불신자 사냥꾼이 쳐 놓은 덫에 사슴이 걸렸다.  
 사냥꾼이 그 사슴을 데려다가 막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 무함마드가 그곳에 이르러 사냥꾼에게 말하기를, “그 사슴 대신에 나를 죽이시오.  
 이 가냘픈 사슴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소.  
 더군다나 이 사슴에게는 두 마리의 새끼가 있다오.  
 어미사슴은 새끼들만을 생각한다고요.  
 새끼들은 한 산속의 샘 가까이 있고,

keleri.” <http://kutuphane.uludag.edu.tr/Univder/derpdf/bektasi.pdf> 2005.04.25.  
 18) 오스만조를 세운 오스만 가지의 아들로 국가의 기반을 닦았다.  
 19) <http://www.turan.tc/td/mitoloji.html> 2005. 04. 23.  
 20) Radloff, Wilhelm. *Türklerin Kökleri Diller ve Halk Edebiyatı III*, pp. 555-559.

어미를 기다리며 우는 소리가  
알라(Allah)의 귀에도 들렸다고" <하락>

### III. 자료 분석에 따른 사슴의 의미와 상징

#### 1. 돌궐족의 조상이며 바다여신(海神)

(자료1)의 사슴이 튀르크족의 역사상의 조상인 돌궐족의 조상이며 바다여신으로 묘사된 유형이다. 사슴이 바다여신으로 혹은 돌궐족의 조상으로 서 직접적으로 묘사된 튀르크 설화는 많지 않다. 돌궐족의 기원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隋書, 北史, 周書 등 중국의 여러 사서에는 돌궐족의 조상이 이리로 묘사되어 있다. 한편 송나라 때 편찬된 설화집인 「태평광기」에는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돌궐족의 조상이 사마사리와 바다여신이라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바다여신은 해가 지면 흰 사슴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코르크마즈(Korkmaz)의 분류에서 ①과 ②항에 해당된다. (자료1)에서 사슴이 돌궐족의 조상이며 바다여신으로 묘사되었다고 해서 코르크마즈가 설명한 것처럼 튀르크족을 보호하는 동물신의 개념이나 그 종족의 토렘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돌궐족의 이리기원신화의 연장선상에서 오우즈 카간 신화를 살펴보면 오우즈 카간이 정복전쟁에 임할 때마다 이리가 나타나서 길을 안내한다. 여기서 이리는 돌궐족의 보호신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자료1)에서는 직접적인 돌궐족의 보호신으로 묘사된 바 없기 때문에 코르크마즈의 분류에서 조상이자 보호신 및 토렘의 의미까지 상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나타난 사슴의 상징과 의미는 돌궐족의 조상이자 바다여신(물의 근원)으로 묘사된 독립된 하나의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유목민족 가운데 최초로 문자를 남긴 돌궐족은 그들의 기원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겨 놓지 않았으나 그들이 남긴 비석들 가운데는 기원신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묘사되어 있어 중국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581년 제1 돌궐제국시대에 세워진 부긱비문에는 이리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이가 부조되어 있어서 튀르크족이 이리로부터 기원되었다는 중국기록의 신화가 사실임을 나타낸다<sup>21)</sup>. 또한 돌궐문자로 기록된 쿠툽 올라(Kutuk-Ula) 비

21) 돌궐족의 이리 신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김효정. “돌궐족의 기

문에는 사슴이 그려져 있으며 제2돌궐제국을 건설한 쿠틀룩 일테리쉬 카간(Kutlug Ilteris Kagan) 기념비에도 새 부리를 한 사슴이 부조되어 있다<sup>22)</sup>. 뿐만 아니라 예니세이 강 주변의 여러 비석에는 암사슴과 다양한 형태의 사슴들이 묘사되어 있다<sup>23)</sup>. 이는 중국 기록에 의해 알려진 돌궐족의 기원신화가 이미 그들 가운데 회자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사슴은 이리와 더불어 튀르크족의 조상으로 묘사되어 온 튀르크족의 신화적 동물 가운데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돌궐비문에는 돌궐제국 카간의 도장(damga)으로 사슴(야생염소)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에 대하여 튀르크 미술사학자인 에신(Esin)은 사슴(야생염소)이 돌궐족의 온곤(ongon)이라고 주장하였다<sup>24)</sup>.

한편 돌궐족의 조상이 바다여신이라고 하였는데 바다(물)와 여신은 튀르크족 설화 가운데 익숙한 테마이다. 뷁르빗스키(Verbitskiy)가 수집한 알타이 튀르크족의 창조신화에서 물속에 사는 ‘악아나(Ak-Ana 白母)’라는 여신이 등장한다. 월겐(Tengri Ulgen)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악아나가 그에게 조언을 해 주고 그 조언에 따라 월겐은 세상을 창조한다. 여기서 악아나 여신은 월겐보다 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더 지혜로우며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sup>25)</sup>

..<상략> 월겐은 계속 생각하였었다, 저 하늘들을 바라보면서 :  
 “하나의 세상을 원한다 나는, 한 혈통으로 창조하리라!  
 어떤 세상이 좋을까, 어떤 종족으로 창조할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창조해야할지!”  
 악 아나(Ak-Ana 白母)가 있었다, 물 속에서 살고 있는,  
 월겐에게 이렇게 말했다, 물 위에 자신을 나타내며:  
 “만약 내가 창조하길 원한다면, 너 자신도 어떤 것들을,  
 창조자처럼, 너도 이 신령한 말을 배워라!  
 단지 말하길, “내가 만들었다 됐다”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마라!  
 더군다나 창조할 때, “만들었다 안됐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  
 악 아나는 이것을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 
- 원신화에 나타난 이리 모티브 소고”, *한국중동학회* 논총, 2001. pp. 241-258.  
 22)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Tekçe, E. Fuat. *Pazirik*. Ankara : Kültütu Bakanlığı, 1993, p. 121.  
 23)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Orkun, Huseyin Namık. *Eski Türk Yazıtları*. Ankara, 1994.  
 24) Esin, Emel *Orta Asya'dan Osmanlıya Türk Sanatında İkonografik Motifler*. İstanbul : Kabaıcı Yayınevi, 2004, p. 39.  
 25)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 Ankara, 1989. pp. 432-436.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무엇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월겐의 꺾가를 계속 맴돌았다, 이 명령은..<하략>.

## 2. 동물신 혹은 신이 사랑하는 신성한 동물

(자료2)의 사가이 튀르크족의 '알튼 푸르칸(Altin Purkan)'<sup>26)</sup> 설화, (자료 11)의 키르기즈족의 '사슴' 설화에서 등장하는 사슴의 유형으로 코르크마즈의 분류에는 없는 유형이다. 여기서 사슴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 이슬람교의 알라(Allah) 등 신들이 사랑하는 신성한 동물로 혹은 동물신으로 사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들이 슬퍼하며 같이 울었다.

(자료2)의 '알튼 푸르칸(Altin Purkan)' 설화는 주인공 '알튼 푸르칸'이라는 영웅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사가이(Sagay) 튀르크족은 남시베리아의 예니세이강 유역의 안드로노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바칸(하카스)<sup>27)</sup> 튀르크족을 구성하는 종족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들의 언어는 하카스어 그룹에 속한다. 안드로노보 지역은 예니세이 돌궐비문 등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는 지역이며 아바칸 튀르크족은 알타이 튀르크족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풍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8)</sup>. '알튼 푸르칸' 설화에는 그들의 고유한 유목민의 정서와 세계관을 나타내는 다양한 신화적 소재들이 등장한다. 이 설화의 발췌부분인 (자료3)에서 말이 사슴으로 둔갑을 하였고 둔갑한 사슴이 울었는데 하늘과 땅의 신이 함께 울고 하늘의 해와 달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묘사는 사슴의 신성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神과 같은 사슴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카라스'라는 말의 새끼, 즉 망아지가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후 화를 내며 사슴으로 둔갑한 장면이다. 망아지가 사슴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 등장한 망아지도 평범한 동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망아지는 무슨 필요에 의해선지 자신의 형체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슴으로 둔갑한 것이다. 사슴으로 둔갑한 후 저주를 퍼부으며 울부짖는데 그 사슴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늘과 땅의 신들도 울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슴이 분을 발하다 하늘 위로 뛰어 올랐는데 그 노함으로 인해 해와 달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다. 땅의 동물인 사슴이 하늘로 올

26) 알튼 푸르칸(Altin Purkan)의 이름을 해석하면 '황금 神'이다.

27) 러시아인은 아바칸 튀르크족을 하카스 튀르크족이라 한다.

28) <http://www.dilimiz.com/tarih/genelbak.htm> 2005. 06. 03.

라가 하늘의 태양과 달의 빛에 영향을 주었다. 사슴이 땅의 동물이면서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태양과 달의 빛을 주관하였다면, 여기서 사슴은 하늘의 신과 연관이 있는 존재이거나 동물신임을 나타낸 것이다. 튀르크 설화에서 사슴은 종종 하늘로부터 신성한 권위를 부여받은 동물로 하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징된다<sup>29)</sup>.

한편 위 설화에서 나오는 황금빛 뿔을 가진 사슴 모티브는 「태평광기」에 기록된 돌궐족의 기원신화에서도 볼 수 있다:

..<상략> ..수십 년이 지나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사냥대회가 열리려 할 때 밤중에 海神이 사마에게 나타나, “내일 사냥 때 당신의 조상이 태어난 굴에 황금 뿔의 흰 사슴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 사슴을 죽이면 나와 더불어 왕래를 이룰 것이나 혹 그 사슴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의 인연은 끝이 난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날 과연 조상의 굴에 황금 뿔의 흰 사슴이 나타났다. 사마가 사슴의 좌우에 사람을 보내어 그 주위를 견고하게 둘러싸니 사슴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 하자 한 병사가 그 사슴을 죽였다...<하략>

(자료11)의 키르기즈족의 ‘사슴’ 설화는 사냥꾼이 덫을 놓아 사슴을 잡았는데 그때 이슬람교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나타나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그 사슴을 살린다는 내용이다. 어미사슴을 기다리는 새끼사슴의 울음소리가 알라의 귀에 들렸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대변자로서 사슴을 살려 줄 것을 사냥꾼에게 간청한다. 사슴은 어떠한 동물이기에 알라가 사슴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함마드에게 사슴을 구하도록 명하는가. 알라가 얼마나 사슴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묘사이다. 사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등장한 무함마드는 설화의 끝부분에서 사냥꾼에게 무슬림이 될 것을 권하고 사냥꾼은 이를 받아들여 결국 무슬림이 된다. 알라와 무함마드가 등장하고 사냥꾼이 무슬림이 되는 등 이슬람 종교적 영향이 가미된 이 설화는 키르기즈족이 이슬람 종교를 수용한 이후에 재편된 것으로 보이며 포교적 성격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sup>30)</sup>. 그러나 새끼사슴의 울음소리가 이슬람교의 절대신인 알라를 감동시켰다는 부분은 튀르크족 고유의 유목전통과

29) Jean-Paul Roux.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İstanbul: Kabcacı Yayınevi, 2002, p. 197.

30) 튀르크 설화 가운데는 튀르크족이 이슬람 종교를 수용한 이후에 종교적 교리에 맞게 혹은 포교의 목적으로 각색된 변이형들이 존재한다. 오우즈 카간 설화나 에르케네콘 설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가이 튀르크족의 ‘알튼 푸르칸 설화’에서 나타난 하늘과 땅의 신이 사슴의 울부짖음을 듣고 같이 울었다는 묘사와 매우 흡사하다. 이는 키르기즈족이 이슬람 종교를 수용했다라도 그들의 사고와 정서 가운데에는 고대로부터 사슴을 신성시 여긴 튀르크족의 원시사고와 정서가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3. 사람(부처)이 사슴으로, 사슴이 사람(부처)으로 둔갑하는 동물

(자료1)의 돌궐족의 기원신화, (자료4)의 ‘제스테이 땡괴’ 바라바 튀르크족의 설화, (자료6)의 누르학 튀르크멘족의 설화, (자료10)의 아나돌루의 ‘사슴사냥’ 설화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자료4)의 바라바(Baraba) 튀르크족의 ‘제스테이 땡괴’ 설화에서는 사슴이 처녀로 변한다. 이 설화는 독일의 튀르크학 학자 라들로프(Radloff)가 1857-1871년 동안 알타이 지방과 서부 시베리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튀르크족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이 설화는 주인공 ‘제스테이 땡괴’라는 인물의 영웅담을 그리고 있다. 이미 16세기에 이 지역으로 이슬람 종교가 유입되었지만 이 설화에는 이슬람 종교적 색채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바라바 튀르크족의 고유한 사고세계를 반영하고 있다<sup>31)</sup>. 위 설화를 샤머니즘과 유목민족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연구한 김효정(2004)은 주인공 “제스테이 땡괴”의 행적을 샤먼과 비교하여 그의 샤먼성을 제시한 바 있다<sup>32)</sup>. 즉 본 설화는 사슴(동물모신)과의 결혼이라는 접신을 통하여 초능력을 소유한 제스테이 땡괴의 영웅적 행적을 그린 작품이다. 설화의 도입부에서 주인공 제스테이 땡괴는 혈혈단신의 평범한 인물로 묘사된 듯 보이지만 내용이 진행되면서 그가 행하는 이적과 행위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나타낸다. 즉, 사슴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아픈 자의 영혼을 치유하는 짓이 나오는 쫓소의 주인, 인간이 된 사슴과의 결혼, 동물 사냥, 거인과의 대결에서 보여 준 용력(勇力)과 신이(神異)함 등. 여기서 사슴은 이야기 전개에 필요하여 설정된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다. 사슴은 튀르크족의 조상이자 튀르크족에게 신령하고 신성한 동물로서 무의식의 세계에 내재되어 있던 상징과 의미의 재현인 것이

31) Kim Hyo-Joung, “Baraba Türklerinin Jestey Mönkö Masahndaki Mitolojik Motifler Üzerine,” *Bilig* Sayı 28. Ankara : Ahmet Yesevi University Board of Trustees, 2004, pp. 43-57.

32) 김효정, “튀르크족의 민담에 나타난 영웅의 특징,”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25-1호*. 한국중동학회, 2004, pp. 217-233.

다. 제스테이 뿔피가 짜 준 젖소의 젖을 먹고 다리가 나은 절뚝발이 사슴 곧 처녀가 된 사슴과 결혼을 한 후 제스테이 뿔피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코르크마즈(Korkmaz)가 분류한 사슴의 유형 가운데 ③항의 샤먼의 보조영신에 해당된다.

(자료6)의 누르학 튀르크멘족의 설화에서는 노인이 사슴으로 변했다. 아나돌루 남부지방의 누르학(Nurhak)산 부근은 500 가구 정도의 튀르크멘족이 모여 사는 곳으로 구비문학 자료가 풍부한 곳이다. 이 지방에는 사슴을 지키던 노인이 공격을 받아 노인이 사슴으로 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이는 코르크마즈(Korkmaz)가 분류한 유형 가운데 ① 혹은 ③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으로 둔갑한 사슴무리를 지키는 동물신이거나 샤먼이 자신의 보조영신 혹은 동물모신인 사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아나돌루반도의 ‘사슴 이야기(Hikaye-i Geyik)’ 설화에는 사슴으로 변한 수도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화살에 맞은 사슴이 사라졌는데 바로 그 장소에 상처 입은 수도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저명한 튀르크학 학자 이난(İnan)이 언급한 야쿠트 샤먼에게 보이는 동물모신(ijäkil)과 관련이 있다. 그에 의하면 샤먼의 동물모신이란 샤먼이 동물로 현현(顯現)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때론 동물모신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동물모신이 죽거나 다치면 샤먼도 죽거나 다친다고 한다<sup>33</sup>). 이는 샤먼에게 동물모습을 한 보조영신과 수호영신이 존재한다는 엘리아테의 주장과도 일치한다<sup>34</sup>). 유라시아에서 사슴은 때로 샤먼의 성격을 규정짓고 때론 샤먼의 타계여행을 돕는 동물로 샤머니즘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35</sup>). 시베리아 샤먼의 의상, 무구 등에서 사슴그림, 사슴가죽, 사슴뿔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사슴가죽은 샤먼의 의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샤먼의 무고(巫鼓)를 치는 북채는 사슴뿔로 만들어진다<sup>36</sup>). 위 설화와 관련하여 누

33) İnan, Abdülkadir, 1954, pp. 81-83. 위와 유사한 예가 시베리아 사모예드족에게도 있다. 사모예드족은 모든 샤먼에게 사슴이 함께 하며 이 사슴은 사슴모습을 한 영(靈)적인 존재라고 한다. 이 사슴은 다른 샤먼과 싸우기도 하는데 사슴이 죽으면 샤먼도 죽는다고 한다. 샤먼이 죽으면 그 샤먼의 자손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의 머리에 사슴의 뿔을 씌운다고 한다(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 Ankara : TTK, 1995, pp. 108-109).

34) 엘리아테 미르치아(이윤기 역), 샤머니즘. 도서출판 까치, 1992, pp. 100-105.

35)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대우학술총서 557, 아카넷. 2003, p. 148.

36) 엘리아테 미르치아, *샤머니즘*. 1992, p. 153, 169 ; İnan, Abdülkadir, *Şamanizm*. Ankara : TTK, 1954, p. 92, 95. 한편 외겔(Ögel)은 샤먼의 의상과 무구에 나타나는 사슴 모티브가 튀르크족의 동물모신(動物母神)과 관련이

르학 지방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사슴을 신령한 동물로 생각한 그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 사슴사냥을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은 한 번 더 죄를 회개한다.
- 사람들은 사슴을 존귀하게 여긴다, 사슴에게는 요정이 있다고 한다.
- 어떤 사람이 물 마시는 사슴에게 화살을 쏘니 사슴이 곧 흰 수염의 노인으로 변하더라. 그 사람은 자기가 한일에 대해 회개하였다.
- 가축 떼에 사슴이 나타나면 그 마을에는 해(害)가 없다.

(자료10)의 아나톨루의 '사슴사냥' 설화에는 사슴의 무리에 금빛 사슴이 있는데 그가 사슴 왕이며 사슴으로 현현한 부처라는 것이다. 코르크마즈의 분류에 의하면 ①항 혹은 ④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슴 무리와 함께 있으며 사슴을 보호하고 왕이 사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사슴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는 것으로 보아 동물신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며 또한 성인들 가운데 부처가 사슴으로 둔갑한 경우이다. 이 설화는 샤머니즘이나 천신사상과 같은 튀르크족의 원시종교나 이슬람교의 색채를 띠지 않고 오히려 튀르크족의 설화에 잘 묘사되지 않는 부처가 등장하고 유목민족의 정서에 맞지 않게 살생을 하지 말라는 등의 불교교리를 담고 있다. '사슴사냥 설화'는 그 기원이 튀르크족의 설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차아타이(S.Çağatay)는 인도설화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이슬람교를 수용하기 전에 불교가 성행한 우이구르족에 의해서 인도설화가 우이구르어로 번역되어 튀르크족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7)</sup>.

#### 4. 길 안내자

(자료7)의 '한메르겐(Han Mergen)' 쇼르(Şor) 튀르크족의 설화에서 보이는 사슴의 유형이다. 동물이 길안내자로 등장하는 소재는 여러 유목민족의 신화에서 볼 수 있다. 훈(Hun)족이 스키타이족의 땅을 장악할 때 길을 안내한 동물이 사슴이며 튀르크족의 신화적 영웅인 오우즈 카간이 정벌할 때 마다 앞장서서 정복할 땅을 안내한 것은 이리이다<sup>38)</sup>. 또한 바쉬쿠르트

---

있다고 주장한다(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 Ankara : TTK, 1989, pp. 36-38.)

37) Çağatay, Saadet, "Geyiğe Dair Bazı Motifler," *Türk Dili Araştırmaları Belleten*, Ankara : TDK, 1956, pp. 157-158.

(Başkurt) 튀르크족의 기원신화에도 이리가 인도하여 지금의 땅에 오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sup>39</sup>). 데데코르쿿 설화집(Dede Korkut Kitabı)의 ‘밤스 베이렉(Bamsı Beyrek) 이야기’에는 주인공 베이렉이 사슴을 쫓아 가다가 어려서 부모가 정혼한 처녀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간다<sup>40</sup>).

(자료7)의 ‘한메르겐(Han Mergen)’ 쇼르(Şor) 튀르크족의 설화는 사슴이 ‘한메르겐’이라는 영웅을 구리산의 주인인 ‘바크르알프’에게로 인도한다. 쇼르(Şor) 튀르크족은 아바칸 튀르크족을 구성하는 종족 가운데 하나이며 그들의 언어는 하카스어 그룹에 속한다. 여기서 바크르알프가 사슴으로 둔갑하였다는 묘사는 없는데 외겔(Öge)은 이 설화 속의 사슴을 땅의 神으로 보았다. 한메르겐이 사슴을 따라 가다가 동굴 곧 땅의 끝에 도달하는데 사슴이 땅의 神이기 때문에 땅의 끝으로 인도했다고 설명한다<sup>41</sup>). 코르크마즈의 분류에 따르면 ③항에 해당하며 땅(구리산)의 신으로 볼 수 있겠다. 위 설화의 다음 부분에서 바크르알프는 한메르겐과 누가 센지 겨루기 위해 그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게 했다면서 한메르겐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여기에서 바크르알프는 바크르 곧 구리산의 주인이며 곧 일곱 神이 만든 산의 주인인 것으로 보아 보통 신들보다 위에 있는 더 높은 존재임을 나타낸다.

## 5. 신성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

(자료5)의 누르학 지방에서 전해내려 오는 사슴사냥과 관련한 ‘알라게익(꽃 사슴)’ 민요의 유형이다. 여기서 사슴은 신성한 동물이므로 사슴에게 해를 입히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슴사냥을 감으로써 자기는 해를 입고, 사슴을 죽이려고 방아쇠를 당기려 하니 손이 마비가 되어 자신의 의지대로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묘사하고 있다<sup>42</sup>). 여기서 사슴은 신성한 능력을 지닌 동물로서 사슴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을 해하는 사슴을 보호하는 동물신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코르크마즈가 언급한 토템이 될 수 없는 동물신의 개념이다.

38) Köprülü, Fuat. *Türk Edebiyatı Tarihi*. Ankara. Ötüken. 1980, pp. 49-50.

39) İnan, Abdülkadir. “Türk Destanları,” *Türk Dünyası El Kitabı*. Ankara :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1976, pp. 377-389.

40) Ergin, Muharrem. *Dede Korkut Kitabı I*. Ankara : TDK, 1989, pp. 7-10 ; Tezcan, Semih. *Dede Korkut Oğuznameleri*. İstanbul 2001, pp. 215-242.

41)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 1995, pp. 102-109.

42) Yalçın, Ali Rıza. *Cenupta Türkmen Oymakları II*. Ankara : Kültür Bakanlığı, 1993, p. 417.

## 6. 성인의 승용(乘用) 동물

(자료9)의 부르사(Bursa)에서 사슴을 타고 다닌 ‘사슴아비(게익리바바 Geyikli Baba)’ 설화에 등장한 사슴의 유형이다. 이것은 코르크마즈(Korkmaz)의 분류에서 ④항에 해당하며 사슴을 타고 다녀서 ‘사슴아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사슴아비’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종파 가운데 예세비(Yesevi)파에 속하였는데 후에 백타쉬파에 들어왔다고 한다. 설화에서도 언급되듯이 ‘사슴아비’는 오르한 가지와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의 주장은 이슬람 순니파와는 달랐지만 그가 부르사에서 죽자 오르한 가지는 그를 위하여 서원과 성묘 및 사원 등을 지어 주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그의 추종자들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게익리바바(사슴아비)분파’가 형성된 배경이다.<sup>43)</sup> 게익리바바가 사슴을 타고 다닌 것은 알타이 튀르크족의 샤먼이 사슴을 타고 다닌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44)</sup>.

## 7.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 사슴

(자료3)의 텔레윗(Teleüt) 튀르크족의 ‘별이 된 아이’ 설화에 등장한 사슴의 유형이다. 코르크마즈는 이러한 사슴의 성격과 상징은 유형화시키지 않았다. 텔레윗(Teleüt) 튀르크족은 텔렌깃(Telengit)과 오이룻<sup>45)</sup> 튀르크족들과 함께 산지알타이 지방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는 알타이 튀르크어의 남부 방언에 속한다. ‘별이 된 아이’ 설화에도 사카이 튀르크족의 설화에서 보인 ‘사슴이 하늘 위로 뛰어 오르는’ 소재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사슴은 사냥꾼의 추격을 피해 하늘로 올라가 땅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 유라시아 유목민족들은 사슴 외에도 달과 별을 다른 동물들과 연관 짓는다. 달과 별은 유목민들에게 시간과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다. 유목민들은 이렇게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달과 별을 자신들이 신성시 여기는 동물들과 연관 지은 것이다<sup>46)</sup> : 튀

43) <http://www.alevibektasi.org/tbaki.htm> 2005. 06. 10.

44) Sabiha Tansuğ, “Anadolu Yaşamında ve Giyiminde Şaman İzleri,” 5. illetlerarası Türk Halk Kültürü Kongresi Maddi Kültür Seksiyon Bildirileri 1997. ([http://www.turkcleronline.com/saman/samanbilg\\_soru\\_5.htm](http://www.turkcleronline.com/saman/samanbilg_soru_5.htm) 2005. 04. 24.)

45) 오이룻 튀르크족은 알타이 튀르크족이라고도 한다.

르크족은 작은곰별자리가 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의 모양이고 큰곰별자리는 이 마차를 쫓는 일곱 마리의 이리 모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달의 주기적인 변화를 이리가 달을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부리아트족은 셋별이 모든 말을 보호하는 神이라고 생각하며, 셋별 옆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별은 목동별이라 부르는데 이 별은 셋별의 말무리를 돌본다는 것이다<sup>47)</sup>

## 8. ‘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신이(神異)함

(자료8)의 아나톨루 남부지방의 엘베일리 지역에 사는 ‘젯빛사슴 할아버지(Bozgeyik Dede 보즈게익데데)’와 관련된 설화에 나타난 사슴 유형이다. 코르크마즈의 분류에는 없는 유형이다. 아나톨루 곳곳에는 ‘젯빛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의 이름이 ‘젯빛사슴’으로 불린 것은 젯빛사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설화 내용에는 그가 왜 ‘젯빛사슴’과 관련된 이름으로 불렸는지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수피 수도사들이 양털가죽(수피)을 걸치고 다니면서 ‘수피즘(신비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젯빛사슴의 가죽을 걸치고 다닌 것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설화에 의하면 젯빛사슴인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를 아무도 들어 올리지 못하고 낙타허리에 묶었는데도 들어 올리지 못한 것을 젯빛사슴인이 와서 그것을 손으로 집었다는 것이다. 아나톨루 남부지방의 엘베일리 지역은 200-250년 전에 아나톨루로 이주해 온 튀르크멘족이 사는 지역이다. 이 지방의 사람들이 “젯빛사슴 할아버지는 엘베일리 튀르크멘족의 요정”이라고<sup>48)</sup> 말하는 것을 보면 ‘젯빛사슴 할아버지(Bozgeyik Dede 보즈게익데데)’라는 이름이 이 지방에서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외에 ‘꽃사슴’이라고 불리는 카프카즈 산의 여신에 대한 묘사가 있다<sup>49)</sup>. ‘꽃사슴’이 여신의 이름인 것인지 여신이 실제로 꽃사슴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18 카프카즈산을 다스리는 자이며 그의 아들 켈오올란은 둔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6) 튀르크족의 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Ögel, Bahaeddin. 1995, pp. 203-217.

47) [http://kaderim.bz.tc/tarih/turk\\_mitolojisi2.html](http://kaderim.bz.tc/tarih/turk_mitolojisi2.html) 2005. 06. 10.

48) Yalçın, Ali Rıza. *Cenupta Türkmen Oymakları I*. p. 33.

49) Ögel, Bahaeddin. 1995. p. 106.

.... 켈오올란은 신방에 들자 둔갑을 풀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젊은 청년으로 변한다.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는 카프카즈 산의 '알라게익(꽃사슴 Alageyik)'이라는 여신의 아들이오. 나의 어머니는 18 카프카즈산을 다스리는 테페괴즈(Tepegöz) 술탄이시오"

#### IV. 맺음말

구석기 시대 때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슴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은 사슴이 인류의 정신세계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을 말해준다. 특히 유라시아에 존재하는 사슴 관련 여러 표현예술과 다양한 설화들은 유라시아 유목민족에게도 사슴은 일찍이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 것으로 사슴에 대한 그들의 정서와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본고에서는 유목민족 가운데 튀르크족의 사슴 소재 설화를 소개하고 설화에 나타난 사슴의 의미와 상징을 통하여 튀르크족의 사슴에 대한 정서와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튀르크족의 역사상의 조상인 돌궐족의 설화를 비롯하여 샤머니즘, 불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여러 튀르크족들의 설화에서 사슴은 튀르크족의 신화적 동물로서 다양한 신성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 자료로 활용한 설화들 속에 나타난 사슴이 갖는 의미와 상징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슴은 튀르크족의 조상으로 바다여신이다 ② 사슴은 신(神)이 사랑하는 신성한 동물이다 ③ 사람(부처)이 사슴으로, 사슴이 사람(부처)으로 둔갑한다 ④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⑤ 사슴은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다 ⑥ 사슴은 성인 혹은 샤먼의 탈것(乘用)으로 사용된다 ⑦ 사슴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⑧ '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신이한 존재로 인식된다.

사슴이 갖는 상징과 의미에 따라 줄고에서 제시한 위와 같은 사슴의 유형은 머리말에서 언급한 코르크마즈(Korkmaz)의 것보다 더 세분화된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유라시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튀르크족의 설화들의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세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슴은 유라시아의 튀르크 문화와 구비문학에서 여러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지닌 신화적 동물로 그 신성성을 나타낸다. 또한 이슬람화된 유라시아의 튀르크족들 뿐만 아니라 아나톨루반도로 유입되어 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튀르크족의 여러 설화에도 사슴의 신성성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대우학술총서 557. 아카넷. 2003.
- 김효정. “돌궐족의 기원신화에 나타난 이리 모티브 소고.” *한국중동학회논총*. 22-2호. 2001: pp. 241-258.
- 김효정. “튀르크족의 민담에 나타난 영웅의 특징.” *한국중동학회논총*. 25-1호. 2004: pp. 217-234.
- 아리엘 골란(정석배 옮김).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푸른역사. 2004.
- 알타이 문명전*. 국립중앙박물관편. 1995.
- 엘리아데 미르치아(이윤기 역). *샤머니즘*. 도서출판 까치. 1992.
- 태평광기(太平廣記) 480*.
- Çağatay, Saadet. “Geyiğe Dair Bazı Motifler.” *Türk Dili Araştırmaları Belleten*. Ankara. 1956: pp. 157 -158.
- Çift, Salih. “Osmanlı Döneminde Bursa'da Bektaşî Kültürü ve Bektaşî Tekkeleri.”(<http://kutuphane.uludag.edu.tr/Univder/derpdf/bektasi.pdf> 2005.05.25.).
- Eberhard, Wolfram(AYkut Kazangil 역). *Çin Simgeleri Sözlüğü*. İstanbul. Kabcacı Yayınevi. 2000.
- Ergin, Muharrem. *Dede Korkut Kitabı I*. TDK 169. Ankara. 1989: pp 7-10.
- Ergun, Metin. *Türk Dünyası Efsanelerinde Değişime Motifi II*. TDK 691. Ankara. 1997.
- Esin, Emel. *Türk Sanatında İkonografik Motifler*, İstanbul, Kabcacı Yayınevi. 2004.
- İnan, Abdülkadir. “Türk Destanları.” *Türk Dünyası El Kitabı*.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Yayınları: 45. Ankara. 1976: pp. 377-389.
- Jean-Paul Roux.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İstanbul, Kabcacı Yayınevi. 2002.
- Kim, Hyo-Joung. “Baraba Türklerinin Jestey Möngkö Masalındaki

- Mitolojik Motifler Üzerine.” *Bilig*. Sayı 28. Kış. Ahmet Yesevi University Board of Trustees, Ankara. 2004: pp. 43-57.
- Korkmaz, Esat. *Eski Türk İnançları ve Şamanizm Terimleri Sözlüğü*. İstanbul: Anahtar Kitaplar Yayınevi.. 2003.
- Köprülü, Fuat. *Türk Edebiyatı Tarihi*. TDK. Ankara. Ötügen. 1980.
- Orkun, Huseyin Namik. *Eski Türk Yazıtları*. TDK. Ankara. 1994.
-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 TTK. Ankara. 1989.
-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 TTK. Ankara. 1995.
- Öz, Baki. “Hacı Bektaş Veli'nin Yaşadığı Tarihsel Ortam”. (<http://www.alevibektasi.org/tbaki.htm> 2006.06.10.).
- Radloff, Wilhelm. *Türklerin Kökleri, Dilleri ve Halk Edebiyatı I-IV*. Ankara. Ekav Yayınları. 2000.
- Sabiha, Tansuğ. “Anadolu Yaşamında ve Giyiminde Şaman İzleri.” *5.Milletlerarası Türk Halk Kültürü Kongresi Maddi Kültür Sektör Bildirileri 1997*. ([http://www.turkcleronline.com/saman/samanbilg\\_soru\\_5.htm](http://www.turkcleronline.com/saman/samanbilg_soru_5.htm) 2005.04.24.).
- Tekçe, E. Fuat. *Pazirik-Altaylar'dan Bir Halının Öyküsü*,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1542, Ankara. 1993.
- Tekin, Talat. *Türk Dilleri*. Ankara. 1995.
- Tezcan, Semih. *Dede Korkut Oğuznameleri*. İstanbul. 2001: pp. 215-242.
- Yalgın, Ali Rıza. *Cenupta Türkmen Oymakları I,II*.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256. Ankara. 1993.

<http://www.dilimiz.com/tarih/genelbak.htm> 2005.06.03.

[http://kaderim.bz.tc/tarih/turk\\_mitolojisi2.html](http://kaderim.bz.tc/tarih/turk_mitolojisi2.html) 2005.06.10.

## A Study of the Deer Motif in Turkic Folklores

Kim, Hyo-Joung

PUFS

In most traditional folklores and arts throughout the world, The character of the deer motif appears as one of the standard figures. The deer motif began to be expressed as a mythological figure from the Paleolithic (Old Stone Age) period and came into common use as a mythical figure in the Mesolithic Age. And during the Paleolithic the early farmers used the character of the deer motif in their religious consciousness and also in their worldview.

In many of the Turkic folklores the deer appears frequently as a common subject. This paper seeks to introduce and study som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urkic folklores that contain the deer motif as its subject. Some of the most common themes in the use of the deer motif in Turkic folklores are:

① As an ancestral goddess in Turkic culture ② As an admired animal by Buddha, Allah, and other gods and deities ③ Transformation of man (Buddha) into a deer and vice versa ④ As a deity or as an animal that serves a deity acting as a guide that helps others who are lost on the road. ⑤ As one who possesses magical powers ⑥ Holy human or a shaman riding on a deer ⑦ That ascends to the heavens and turns into a star ⑧ In Turkic folklore figures named as "deer" often performing miracles

If all the data about Turkic folklores throughout Eurasia can be further studied then even a more detailed peculiarities about it can be discovered. Although the presence of the deer motif is prevalent in Turkic folklore, there is very little mention of the deer in Chinese folklore. At the most, the deer represents wealth and longevity in the Chinese culture. However, throughout the nomadic

oral traditions within the Eurasian ethnic groups their identification of the deer is more intimate and fully detailed. And also, within the Islamic culture in Anatolia peninsula (Turkic Oghuz people group) we can continue find the sacredness of the deer motif in Turkic folklore.

[ Key Words : Turkic Folktale, the Symbol of the Deer Motif,  
Shamanism ]